기장 장안사, '불교 문화재' 환지본처

국가 귀속 출토 문화재 548점 소유권 반환받아

2013년부터 4차에 548점 출토돼 문화재청 소유, 장안사 문제제기 발굴 문화재 소유권 중요한 선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장안사 주지 무관 스님은 10월 20일 해동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굴한 문화재의 소유권을 재지정 받고 돌려받음을 밝혔다. 사진은 장안사 출토 문화재.

기장 장안사가 경내에서 출토된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장안사 주지 무관 스님은 10월 20일 장안사 해동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3년부터 출토된 발굴문화재의 소유권을 재지정 받고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불교계는 그동안 문화재가 경내에서 발굴되어도 관리 능력 소홀 등의 이유로 국가가 문화재를 귀속해 소유권을 돌려받는 경우가 전무했다. 장안사 문화재 소유권 반환으로 문화재 관련 불교계의 소유권 지정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주지 무관 스님은 "불교 문화재는 단순히 역사를 담는 의미인 문화재를 넘어서 '성보(聖堡)의 가치'로 인정받아야 하며 이번 소유권 반환은 그 가치를 담는 중요한 첫 시작이다"고 역설했다.

장안사 문화재 발굴은 2013년 7월 복원정비 및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시굴조사 과정에서 76점의 문화재가 확인되며 시작됐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차 발굴조사가 진행됐으며, 251점의 유물이 발견됐다. 당시 장안사 창건 시기인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유구(遺構)가 출토되는 성과를 냈다. 이어 2016년 12월부터 2차 발굴조사가 시작돼 2017년 3월까지 진행됐으며, 총 91점의 유물이 발굴됐다. 또 2020년 4월부터 7월 6일까지 3차 발굴조사가 진행됐다. 장안사에서 발굴된 문화재는 명문 암막새와 명문 백자 등 제작연대를 보여주는 토기류와 스님들의 수행 및 옛 생활을 보여주는 백자 접시, 분청 도자기 등이다.

장안사의 이번 문화재 소유권 반환은 주지 무관 스님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무관 스님은 주지 취임 후 조계종 문화부와 논의, 출토 국가귀속유물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제기했고 문화재청에 발굴조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7월 20일 장안사는 소유권 판정 신청을 문화재청에 접수했고, 문화재청은 9월 29일 장안사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장안사에 출토유물을 반환한다고 보고했다.

무관 스님은 "3차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출토유물 130점도 추가로 모두 반환받기로 했다"며 "반환된 유물은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 보존하고 학술연구에 기여토록 하겠다. 불자들의 신심 고취에도 활용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세계문화유산 인근 채굴사업 논란 확산

통도사 10월 18일 반대운동 영축환경위 위촉


통도사는 10월 18일 주지실에서 영축환경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채굴 사업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을 천명했다.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인근서 채석·채굴 사업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한 지역 개발사업이 주관하는 채굴사업이 통도사 서운암과 자장암 뒤편 산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양산 통도사(주지 현문)가 반대운동에 나선다.

양산 통도사는 10월 18일 주지실에서 영축환경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채굴사업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을 천명했다.

영축환경위원회 위원장은 통도사 사회국장 성오 스님이 임명됐으며 호법국장 천주 스님, 밀양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 통도사 재적승 세봉 스님, 이병인 교수(부산대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함세영 교수(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홍석환 교수(부산대 조경학과), 최송현 교수(부산대 조경학과), 구자상 부산환경운동연합 대표, 김점복 양산국유림관리소 소장, 강채원 시민환경운동가, 심규명 변호사 등 12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이번 영축환경위 위원 위촉식에서 주지 현문 스님은 12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세계문화유산 통도사의 자연과 수행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통도사 인근 채굴사업은 A개발사업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채석사업 신청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준비 중에 있다.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는 정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며 통도사 인근 채석단지 사업 지정신청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통도사 인근 채굴사업 예정지인 상북면은 통도사 창건설화에 등장하는 오룡골 인근이다. 통도사는 "세계문화유산 통도사는 세계가 인정하는 산지승원으로서 1370여 년 동안 청정한 수행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무형의 가치 있는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찰"이라며 "이러한 산지승원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는 영축산의 자연과 통도사의 수행환경을 보존하고자 2013년 1월 발족됐다. 같은 해 2월, 위촉식을 갖고 당시 환경 이슈였던 밀양얼음골케이블카 건설과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어 6월에는 밀양 송전탑 건립반대 현장을 지원하고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며 환경 보존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개산대재, "호국성지로 지속 발돋움"

범어사 10월 18일 개산 1342주년 개산대재 봉행


부산 범어사가 10월 18일 대웅전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개산 1342주년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부산 범어사(주지 경선)는 10월 18일 대웅전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개산 1342주년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개산대재는 육법공양과 삼귀의 및 헌화, 헌다, 인사말 등 간소하게 진행됐다.

주지 경선 스님은 국보로 승격된 삼국유사를 설명하며 "범어사의 창건과 의상대사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삼국유사가 국보로 지정된 것은 시절인연이 도래한 경사스런 일"이라며 "성보를 보존하고 가치를 드러내는 일은 과거의 지혜를 전승하는 대작불사이자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년의 세월동안 꺼지지 않는 법등을 이어 온 범어사다. 개산의 참뜻을 알고 불자들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더 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수관 범어사 신도회장은 "범어사는 험난한 한국사에서 불교와 민족을 지킨 호국도량이다. 오늘날 한국은 코로나 19로 인한 고통과 이념 갈등 및 이기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상대사의 개산 의미를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극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이번 범어사 개산대재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대중들 참여가 제한됐다. 대중들은 마스크를 끼고 발열점검과 손소독을 한 후 행사장에 입장했다.

한편, 범어사는 개산대재 후 제120회 보살계 수계산림을 보제루에서 봉행했다. 매년 봄에 진행되는 보살계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연기, 계의 소중함을 알리는 법회로 회향됐다. 보살계 삼화상은 전계대화상 경선 스님, 갈마아사리 정여 스님, 교수아사리 보문 스님이며 존증아사리는 대오 스님, 석경 스님, 원타 스님, 의정 스님, 공마 스님이 맡아 계를 내렸다. 경선 스님은 "행복하게 불심으로 살아라는 것이 보살계 정신이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종자가 불성"이라고 설법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광주 증심사 취백루 보수공사 회향

광주 증심사(주지 중현)가 10월 17일 전통문화관인 취백루 보수공사 회향을 갖고 광주의 새로운 문화명소로 거듭나기를 기원했다.

건물 노후화와 난방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취백루는 3개월의 보수공사를 마치고 새 단장을 했다. 공사는 1층 종무소의 현대화로 진행됐다. 여기에 회의실을 비롯해 신도들의 문화공간이었던 2층은 바닥 난방과 주변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창문으로 교체하고, 현대식 냉난방 시설이 설치되 품격과 현대적 조화가 더해져 눈길을 끈다.

개관 테이프 커팅식에 이은 기념식에서 주지 중현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취백루는 전통과 문화를 함께하는 공간이다. 지금까지 했던 불교대학, 템플스테이 체험을 더 잘할 것이며, 여기에 광주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도들의 문화적인 공간인 신행생활 뿐만 아니라 미술치료,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회주 진화 스님도 현판 글씨를 써주신 학정 선생과의 일화를 설명하며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담겨있다. 이 시설을 잘 써야 그러한 보람이 있다"라고 격려했다.

행사에는 회주 진화 스님, 중현 스님,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해 50여 명의 대중이 참여했다.



한편 취백루는 고려시대에 존재했으나, 1607년 정유재란 때 소실된 것을 광해군 원년인 1609년에 중창하면서 정문 2층 누각으로 복원됐다. 이후 1951년 한국전쟁 때 전소됐으나, 1998년에 재차 복원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찰음식 드시고 코로나19 퇴치를"

정암사, 10월 22일 대구의료원에 사찰음식 도시락 전달



정암사 불자 대중들이 10월 22일 대구의료원에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위치한 정암사(주지 대현)가 10월 22일 대구의료원(병원장 유완식) 라파엘 웰빙선터에서 사찰음식 도시락 400개를 전달했다.

이날 정암사서 마련한 도시락은 17년간 지역 봉사활동을 하는 주지 대현 스님이 코로나19 퇴치에 힘쓰고 있는 대구의료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안하며 마련됐다. 총무 진묘 스님과 신도회 배태순 씨 등 봉사자 10여 명이 사찰음식으로 도시락을 준비했다.

정암사 주지 정암 스님은 "코로나19 사태동안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한끼 식사라도 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찰음식으로 도시락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구의료원 유완식 병원장은 "스님들을 비롯한 불자들이 전해 준 음식에서 따스한 마음이 느껴진다. 의료진들을 대표해 감사하며, 코로나19 퇴치와 환자 보살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도 10월 19일 부산의료원을 방문해 사찰음식 도시락을 전달했다. 도시락은 600인분으로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을 비롯해 신도 100여 명이 준비한 것이다. 홍법사 사찰요리 도시락은 매년 개산대재를 맞아 진행하던 사찰요리 축제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취소하고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회향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포산승가원, 블랙야크에 승가공양 받아

제주 약천사 무료시설인 영천시 효자로에 위치한 포산승가원(원장 덕조)은 10월 16일 블랙야크(BLACK YAK) 강태선 대표로부터 동절기, 스님들에게 필요한 신발과 발열조끼 등을 후원받았다.

이날 블랙야크에서 마련한 승가공양 물품은 스님들을 위해 특별 제작한 신발과 워크웨어 S-발열조끼 등 300여 만원에 해당되는 물품들로 겨울철을 맞는 스님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꼭 필요한 물품들이다.

포산승가원장 덕조 스님은 2018년 8월에 준공된 승가원의 소개와 평소 승가복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약천사 신도회 명예회장인 블랙야크 강태선 회장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특별히 승가원에 입주한 노스님들을 위해 많은 성원해 주심을. 수행과 정진에 더욱 매진해 그 고마움을 회향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은 "평소 승가복지에 관심이 있어 오늘 작은 정성에도 포산승가원에 주석하고 계신 스님들께서는 분에 넘치게 환대해 주시니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모든 일에 성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064)738-5000

손문철 대구지사장

표충사, 제554회 사명대사 추계 향사

호국성지 표충사가 사명대사 추계향사를 봉행하며 코로나19 소멸,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표충사(주지 진각)는 10월 21일 경내 성보박물관 앞 특설무대에서 '제554회 호국대성 사명대사 추계향사를 개최했다.

향사에는 통도사 전 주지 원산 스님, 표충사 전 주지 청운 스님,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 울산 월봉사 주지 보화 스님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동참했다.

추계향사는 △개회사 △명종5타 △삼귀의례 및 반야심경 △헌향 △헌다 △종사영반 △헌화 △추모사 △주지스님 인사말 △공지사항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진각 스님은 "재약산 붉은 단풍이 마치 호국대성 사명대사의 뜨거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듯하다"며 "어느 때 보다 어려운 현재 사명대사의 호국정신과 불교의 대자비심을 기리는 제554회 추계향사를 봉행하게 됐다"고 인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모은중경언해' 문화재 지정 고불식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이 올해 전북유형문화재 270호로 지정된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의 고불식을 봉행했다. 10월 18일 금선암 극락보전에서 봉행된 고불식은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을 비롯해 여래향사 성찬 스님, 완주 대각사 혜공 스님, 제천 대각사 주지 백운 스님, 여래향사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안준아 금선암 신도회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오종근 전북불교네트워크 대표, 김용상 자비공덕회 집행위원장과 불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고불식에 앞서 여래향사 성찬 스님의 금선암 본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의 판각시기와 문화재 지정사유, 판본 유래 등 특징과 중요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은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본의 경판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며 " 금선암에서 매년 10월 정대불사와 효행문화제를 개최해 효행상을 제정하는 등 효행실천도량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